

#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전북 5곳 선정

# 도, 스포츠과학센터 공모 선정

### 문화관광형 시장 2곳 · 골목형 시장 3곳 3년간 국비 27억원 지원

3일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이 전국 전통시장 중 특성화 육성대상 시장 98개소를 선정한 가운데 전북 지역은 5곳의 전통시장이 선정됐다. 이로써 도의 지역특성화 전통시장 육성 사업은 전주 남부시장을 포함해 총 10곳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3일 전북도는 중기청이 실시하는 '2016년 시장경영혁신 지원 및 주차환경개선 사업(이하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에 전북지역 전통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2곳, 골목형 시장에 3곳이 선정돼 3년간 총 27억원의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은 전통시장의 입지·역량에 따라 '글로벌명품', '글로벌도야(지역선도)', '문화관광형', '골목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돼 실시된다. 글로벌명품 시장은 전통시장을 세계적 관광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당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고 '글

로벌도야 시장'은 글로벌명품 시장으로 도야 준비시장으로서 시장당 시장당 3년간 최대 25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문화관광형 시장은 지역의 문화·관광·특산물 등과 연계해 전통시장을 관광과 쇼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당 3년간 최대 18억원을 지원하고 지난 해부터 시행된 '골목형 시장'은 도심과 주택가 등에 위치한 전통시장을 사회적 공간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시장당 1년간 최대 8억원을 지원해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앞서 도에서는 2009년 전주 동문 상점가와 2012년 정읍 생고을 시장, 2013년 남원 공설 시장, 무주 시장 등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 돼 특성화 전통시장으로 육성된 바 있다.

또한 2014년에는 완주 고산시장과 부안상설시장, 2015년에는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 신중앙시장, 전주 모래내

시장 지역특성화 전통시장으로 선정돼 현재까지 계속지원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다.

특히 이 중 전주 남부시장은 당초 '글로벌 명품시장'으로 선정 돼 현재 한옥마을과 연계해 천변 벽화그림 마을까지 관광지로 활용 중에 있으며 상설 주말 야시장을 개장해 운영 중에 있다. 아울러 전주 신중앙시장 등은 실버패션쇼 등 다채로운 행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에 군산 신영시장과 익산 매일연합 시장이, '골목형' 시장에 남원 용담 시장과 전주 중앙상가, 완주봉동 시장이 선정됐다.

앞으로 도는 전주 남부시장의 야시장을 확대하는 등 기존에 진행중인 특성화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유지하고 이번에 선정된 군산 신영시장과 익산 매일연합 시장에 대해서

박대를 활용한 상품 개발과 역사문화 미니어처 조성 등으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늘려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골목형 시장으로 선정된 3개 시장에 대해 혼수 전문 전주 중앙상가, 길거리 음식 특화 남원 용담시장, 생각을 테마로한 완주봉동시장 등 1시장 1특색을 띄도록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문화와 관광을 연계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시장 발전이 지속되는 시장으로 거듭나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중기청 발표에 따르면 전북대대로 익산 남부시장 등 전북지역 7개 지역이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 선정됐다.

/정영수기자

### 문체부 측정장비 6억원 · 운영비 매년 3억원 국비 지원

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라북도 체육회(회장 송하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과학센터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국가공모사업인 '지역스포츠과학센터'(이하 과학센터) 공모사업에 2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 해에 이어 실시한 이번 공모 사업에는 총 7개 시·도가 신청해 전북을 비롯한 경기, 대구 3곳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문체부로부터 측정장비 6억원과 과학센터 운영비 3억원 등 총 9억원을 지원받고 내년부터는 매년 3억원씩의 운영비를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과학센터는 2015년도에 도입돼 이전에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만 제공되던 스포츠과학 지원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학생 선수와 실업팀 선수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센터이다.

현재 과학센터는 서울·대전·광주 체육회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지역 선수들의 기초체력과 전문체력을 측정, 전문가의 운동처방을 지원 중에 있다. 이를 통해 과학센터는 선수 및 지도자들이 전문가의 지식에 따라 훈련 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과학적 스포츠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인력 충원을 통한 일차

리 창출 효과도 내고 있다.

특히 과학센터는 지역의 강세 종목 및 중점 종목 우수선수에게는 체력 강화 프로그램 경기 기술 분석 프로그램, 심리·정신력 강화 프로그램 등 스포츠과학 밀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북체육회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체육회관내에 전국 최초로 스포츠과학센터를 설치·운영해 오고 있다. 스포츠과학센터 활성화사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그간 장소확장을 위한 센터 이전, 주요장비 확충을 통해 주요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일반인들의 개인 맞춤형 처방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의 과학센터는 공모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문체부와 타 시·도의 모델이 됐다.

그 결과 배드민턴 서승재 선수 등 국가대표를 배출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인태 전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국가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의 많은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더욱 다양한 스포츠과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지난 6년간의 노후유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스포츠과학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적극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 전북도 선진 간판문화 선도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 추진

3일 전북도는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간판문화 선도를 통해 가로환경개선과 구도심 관광자원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간판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도민들의 간판에 대한 인식변화와 도시경관의 품격을 높여 나가기 위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도내 25개지역에 총 69억원을 투입해 간판개선 시범사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에도 2016년도 중앙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 광한루원 및 예촌길 주변 간판개선사업 뿐만 아니라 도 자체사업 2개소를 추가로 선정하는 등 총 3개소에 9억원을 투입해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노후된 간판과 건물벽면 등의 정비를 올해 12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김현환 건설교통국장은 "간판개선사업은 아름다운 경관과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등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며 "2017년도 중앙공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 간판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3일 도청 종합상황실(4층)에서는 산업단지 재난안전을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도내 8개 유관기관이 '산업단지 재난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도, 고용노동부 ·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2개 선정

3일 전북도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각각 공모한 '건설일용근로자 취업지원사업'과 '시니어인턴십' 사업에 선정돼 국비 6억1,000만원을 지원 받고, 1,742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의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사업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양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건설근로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시니어인턴십'은 기업과 함께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민간기업체를 대상으로 만

60세이상 노인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턴형'과 '연수형'으로 만60세 이상 노인을 채용한 기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한다. 인턴형은 참여노인 1인당 6개월 인건비(급여의 50%, 최대 45만원)를 지급한다.

/정영수기자

## 도, 8개 유관기관과 산업단지 재난안전 협약 체결

전북도는 3일 산업단지 재난안전을 위해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도내 8개 유관기관과 '산업단지 재난안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새만금지방환경청장,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장,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장,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안전보건공단 전북지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북지회장, 전북기업환경협의회장 등 8개 기관의 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단지의 재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전북 구현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이 산업단지 사고예방과 유기적인 사고대응을 협력하기 위한 자리였다. 협약내용은 ▲산업단지 재난안전 및 안전전북 구현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 ▲계절별·분야별로 유관기관 간 상시 합동점검 및 연합훈련 실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장

시설 화학물질 등 정보공유 등이다.

당초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경우 분야별 행동수칙, 대응대책이다. 그리고, 사고물질별로 주관 부서가 달라 지자체만의 역량으로는 사고 예방과 대응이 어려웠다.

이에 따라 도는 그 동안 산업단지 재난안전과 관련, 사업장의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만금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함께 산업단지 안전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왔다.

이 날 송 지사는 "도정 8대 중점업무 중 첫 번째가 '안전전북' 구현이다"며 "도정운영의 기본을 안전에 두고 무실역행의 자세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의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산업단지 재난안전의 선제적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수기자

## 스피치 · 웅변 · 면접 · 리더십 · 시낭송

-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단다!
-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욱 전담교수의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당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토론과 면접) 전담교수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최초 스피치마정 설치 강연자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컨설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발, 스피치노하우 등
- 방송: KBS 아침마당(3회), MBC 전라도 사람들 JTV현장다시보기 등 방송출연



※ 과 목: ① 스피치기법과 리더십 ② 스피치최고지도사(고급)  
③ 주말반: 토요일(매주 1회수업) ④ 면접반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 전북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익산캠퍼스)
- 서남대학교 평생교육원(남원, 순창, 장수)
- 군산대학교 평생교육원(군산, 김제, 부안)
-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완주, 김제)
-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전주, 임실, 완주)
- 전북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정읍, 고창)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